

건강한 속사람 VI.

영적 익숙함과 무더짐의 순간을 용납하면 결국 다 무너진다.

1. 영적 무더짐으로 오는 결과

[사무엘상 3:1-2]

1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 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2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구약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크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한다. 나라 전체의 중요한 방향성을 결정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때는 그렇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환상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기록한다.(1절) 더 나아가서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고 말한다. 엘리의 눈은 육신의 눈, 영적인 눈 모두가 어두웠다. 엘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하신 이유를 보면 알 수 있다.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좋지 않았다. 그들은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이었다(삼상2:2). 그들은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할 정도의 악행이 있었던 자들이다(삼상2:21). 엘리는 이런 아들들의 범죄함 앞에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를 책망하신다.

[사무엘상 2:29]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였다.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것은 '분별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무엇이 옳고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이다. 엘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하였고, 하나님 보다 범죄한 자식들을 더 소중히 여겼다. 영적으로 무더진 사람의 특징은 엘리와 같다. 결국 '스스로를 살찌우게 하는 일' 다시 말해,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모든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결국 엘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당한다.

2. 영적으로 무더진 상태의 특징

1)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다.

열정이 식어진다. 그래서 모든 것을 육신을 살찌우는 일, 즉 욕망을 해결하는 일에만 초점을 둔다. 영적으로 무더진 상태는 하나님의 것 보다 육신의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집중을 할 때이다.

2) 자신이 무더져 있는 줄 모른다.

영적으로 무더진 사람은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무더진 상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조금도 없는데도 자신은 괜찮은 줄 안다.

3) 하나님에 대한 비판적인 마음이 생겨난다.

본질과 복음을 말하면 세상의 이치를 말한다. 이유가 많아진다. 자신의 상태에 도전이 되는 메시지들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는다. 그 이유는 받아들이면 자신의 상태를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세상의 소리가 더 커진 것이다.

4) 예배를 빠지기 시작한다. 말씀을 읽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영적인 모든 일을 형식적으로 한다. 주저하고 물러나기 시작한다. 기대감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결과는 영혼이 망가진다. 결국 그 영혼은 피폐해진다. 지쳐 갈 것이고,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 신앙적 양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괴로워 하지만, 그렇다고 변화 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

3. 영적으로 무더진 이유

* 성경적 관점 -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깨어 있으라는 메시지이다. 언제 주인이 오실지 모른다. 그러니 준비된 상태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게으를 수 없다. 충성과 성실함이 있어야 한다. 영적으로 무더지면 시대 분별을 하지 못한다. 더 구체적으로, 세상의 세계관에 완전히 압도 당해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계절을 이해하지 못한다. 자신의 시간을 산다. 세상의 시간을 따라간다. 영적인 영역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 볼 기회가 없다. 그렇게 되니 무더지게 되고, 현실을 깨어서 살지 못한다.

4.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지혜'를 주셨다. 지혜는 이 땅을 다스리는 하늘의 권세이다. 이 땅을 가장 강력하게 통치했던 다윗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권세가 '지혜와 명철'임을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었다.

[잠언 4:4-8]

- 4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 5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 6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 7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 8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폄오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강력히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강조했다. 지혜가 솔로몬을 지킬 것이고(4절), 지혜가 보호할 것이고(6절), 지혜가 제일이다(7절) 라고 강조했다. 무슨 말인가? 지혜는 땅에 잠식 당하지 않게 한다. 지혜는 땅을 통치하는 권세이다.

5. 지혜는 하나님의 계절과 시간을 보는 권세이다.

[잠언 10:5]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다니엘 2:21]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지혜란 이 땅을 통치하는 권세이다. 통치란 무엇인가? 자기의 '시간'을 흐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세상의 시간은 세상의 논리와 법이 흐른다. 정권마다 분위기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정권의 시간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란,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악한 왕들이 통치할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가득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통치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일이 가득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에게 '시간'을 주관하는 분, 계절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이신지 가르치셨다(21절).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세상의 시간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그 속에서 구분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살았다. (하루 세 번 기도하는 일) 그리고 그에 맞게 먹는 것, 보는 것, 입는 것, 즉 삶의 패턴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았다.

6. 계절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잠언에서의 지혜로운 자는, 여름과 추수할 때 무엇을 할 줄을 아는 자다. 전체 계절을 아는자이고, 전체계절안에 있는 부분적인 계절을 아는 자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어떤 계절에 있으며, 그 속에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아는 자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게 행동한다. 여름에 겨울일을 할 수 없고, 봄에 겨울일을 할 수 없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시간에 맞추어 살기때문에 하나님의 시간과 관련이 없다. 하나님의 시간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더진 상태는, 하나님의 시간과 계절을 보는 '지혜가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이런 삶은 언제나 뒤죽박죽 되어있다. 엘리 가문처럼 정돈되어 있지 않다. 영혼육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이다.

문제는 영혼육이 망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계절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지금 기도해야 할 시간과 계절이고, 회복해야 할 계절이고, 땅을 기경해야 할 계절이라는 것을 모른다. 겨울에 여름옷을 입고, 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있어도 모른다. 자기가 좋으면 되는 것이다.

7.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속한 계절을 분별하여 최선을 다한다.

다윗의 삶을 보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계절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목동, 아들람, 헤브론, 예루살렘). 모든 계절의 상황이 달랐고, 그에 따른 다윗의 역할도 달랐다. 전쟁해야 할 때는 열심히 전쟁했고, 예배하고 누려야 할 때는 기쁨과 승리를 누렸다. 다윗은 지혜가 많은 자였다. 그런 다윗의 지혜를 솔로몬은 두려워했다.

지혜로운 자에게 부여하시는 축복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것이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겨야 할 때를 알았다. 인간의 계절로는 아직 소년이다. 청년과 장년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지 않았다. 소년이었지만 그는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사울을 설득하여 전쟁에 나간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골리앗을 이기게 하심으로 새로운 문을 열어 주셨다.

요셉도 마찬가지이다. 요셉의 모든 계절은 다르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 감옥에 있었던 요셉, 총리로 있었던 요셉의 모든 계절이 모두 다르다. 한 가지 공통점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계절로 해석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다. 그 후, 최선을 다한 요셉에게 그 다음의 계절이 열렸다.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계절과 시간을 주관할 수 없다. 지혜로운 농부는 그 계절에 맞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각 계절마다 최선을 다해야 결국 놀라운 결실과 수확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8. 자신이 어떤 계절에 있는지 분별하고 최선을 다하라. 영적인 익숙함과 무더짐에 빠질 수 없게 된다.

9.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시간은 모르지만, 계절은 알 수 있다.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명심하라. 성경은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는 깨어 있는 것,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 있는 지혜가 부여되는 것임을 명심하라.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늘의 은총이 있다. 불평하거나 게으르지 말라. 결국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삶은 후회로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가운데 주신 다양한 계절이 있음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라.